

발생 후



시설하우스 관리

- 시설피복재에 부착된 황사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세척 실시

* 비닐하우스의 세척 방법별 투광률 비교

분수호스 (5%증가) < 동력 분무기 (8%증가) < 손 세척 (12%증가)



황사에 의한 비닐하우스 투광률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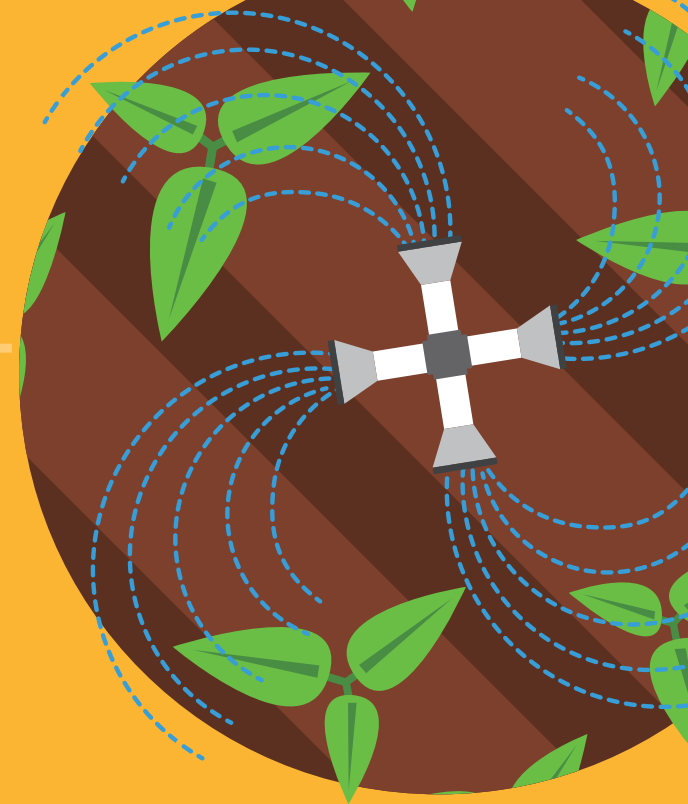
- 효과적인 세척방법
 - 비닐하우스 : 수용성세제를 0.5%정도로 희석하여 분무 세척 후 많은 물로 2차 세척
 - 유리 온 실 : 옥살산(oxalic acid) 4% 용액을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온 날 뿌려주고 3일 뒤에 물로 세척

가축관리

-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내·외부, 사료급이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
-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부드러운 솔로 털어 낸 후에 몸체를 물로 씻어내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실시 (기온이 낮을 때에는 보온관리에 주의)
-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가축의 이상 유무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상증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·군 방역 기관에 신고

문의사항 :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(063-238-1041), 시군농업기술센터

봄철 불청객 황사대비 농작물 관리요령



황사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
황사가 나타나기 전에 「황사발생 기상정보」를 확인하여
『황사대비 농작물 관리요령』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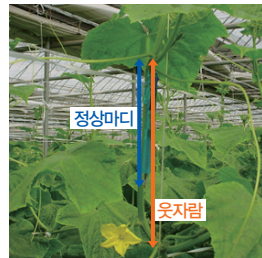
농작물에 미치는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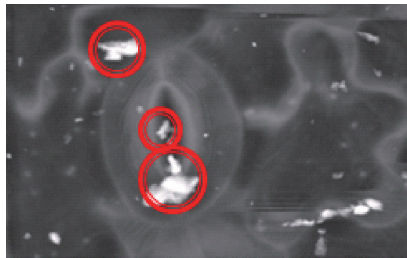
- **직접적인 영향** : 작물기공폐쇄 → 기공저항증가 → 물질대사 이상
- **간접적인 영향** : 시설하우스 표면 부착 → 태양빛 투광량 감소
⇒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작물생육 장애 발생



애호박 낙과 발생



투광량 감소에 따른
꽃자람 발생



황사로 인한 기공차단 현미경사진

가축에 미치는 영향



황사에 의한 환축모습

- 공기중의 미세한 먼지로 인해 가축의 호흡기 및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
- 장기간 지속적으로 황사에 노출시 성장지연으로 인한 가축의 생산성 저하 유발 가능

황사피해 줄이기 '생활수칙'

- ☑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습니다.
- ☑ 어린이나 노약자, 호흡기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갑니다.
- ☑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, 긴소매 의복을 착용합니다.
- ☑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.
- ☑ 황사에 노출된 채소, 과일은 충분히 씻습니다.

발생 전

- 기상청의 황사예보와 대책 방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- 비닐하우스 등을 세척할 물을 확보하고 급수시설 고장유무 점검
-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를 점검·정비
-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
- 야외에 있는 건초,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음

발생 시

- 노약자, 어린이,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외출을 자제
-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을 실시
- 시설 원예작물 재배의 경우 황사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이용해 광을 보충
-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킴



황사 제거(세척)



야외 노출시 송아지 마스크 착용



일조부족시 LED 이용 장미보광재배

시설하우스 및 가축관리 요령

